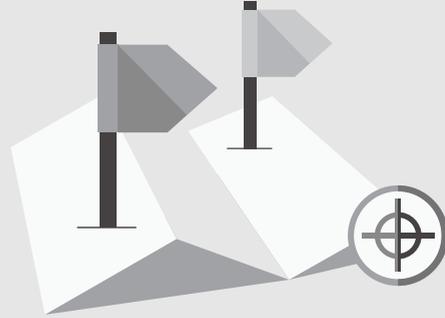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변수정

가족 기능 및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김은정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이윤경

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남궁은하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과 함의

진화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동 현상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관련 가치관에 대한 심층 파악을 통해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을 활용하여 총 130명의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11일~10월 22일이며, 전국 17개 사도의 801개 집계구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1) 가족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하여 가족기능, 결혼과 가족 형성·구성에 대한 가치관, 2) 연령규범 및 세대 가치관과 관련하여 연령집단 기준에 대한 가치관, 연령규범과 연령차별 인식,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3)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0-63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에 게재된 원고들은 이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가족 기능 및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¹⁾



Social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s, Gend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김은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가족 기능 및 가치관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족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기능으로 조사되었다. 젊은 층,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정서적 기능을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재생산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성 역할과 책임이 더 이상 보편적인 사회적 관념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가족 내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함에도 인식 수준에 맞는 가정 내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가족정책은 가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정서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생활에서 육아 및 가사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이 역할과 책임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사회 구성원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과 같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저출산 현상은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글은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가족 기능에 대한 가치관 영역의 분석 결

1) 이 글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이윤경 외, 2020) 5장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 전통적 가족 내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가족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각각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성, 연령, 혼인상태,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항은 기존 연구 및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가족 기능은 기존 문항을 바탕으로 6가지 영역으로 제안해 조사하였으며,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문항은 기존 연구 및 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영역인 육아, 가사노동, 경제적 부양 부분과 의사결정권과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가정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문항도 유사한 영역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이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가족 기능에 대한 인식

가족 기능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가능하며 이 글에서는 강홍렬 외(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가족의 기능 범주를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족 기능의 범주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재생산 기능, 정서적 기능, 교육 기능, 경제적 기능, 복지 기능의 5가지 범주를 제안하였다. 재생산 기능은 성적 기능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가족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

화 시대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다만, 자녀 출산과 같은 재생산의 기능이 성적 기능에 항상 수반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재생산 기능과 성적 욕구 해소 기능을 구별하였다.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1%가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을 꼽았다. 뒤이어 ‘자녀 양육과 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26.2%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10.1%만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봄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각각 5.7%, 4.3%에 불과하였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가족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들 간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족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서적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양옥경(2000)의 연구에서 향후 가족의 구조는 다양하게 변화하더라도 정서적 기능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 미래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욱 중요해지며 개인화의 발전 속에 정서적 기능에 대한 기대도 공존할 것으로 전망한 바와 같이 시대가 변해도 가족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자

표 1.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

(단위: %)

가족 기능	비율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 (정서적 기능)	49.1
자녀 양육과 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사회화 기능)	26.2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유지하는 기능 (재생산 기능)	10.1
아동 및 노인 등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기능 (돌봄 기능)	5.7
결혼을 통해 남녀 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성적 기능)	4.7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과 자산을 함께 공유하는 기능 (경제적 기능)	4.3
계	1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1>.

표 2.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응답자 특성)

(단위: %)

특성	정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재생산 기능	돌봄 기능	성적 기능	경제적 기능	계(명)
전체	49.1	26.2	10.1	5.7	4.7	4.3	100.0(8,000)
성별($\chi^2=3.379$)							
남성	49.2	26.6	9.5	5.6	4.9	4.2	100.0(3,965)
여성	48.9	25.8	10.6	5.8	4.6	4.3	100.0(4,035)
연령($\chi^2=73.861^{***}$)							
19~29세	53.2	24.8	7.4	5.3	4.9	4.5	100.0(1,360)
30~39세	49.3	27.1	9.2	4.9	5.7	3.8	100.0(1,279)
40~49세	49.4	27.0	9.2	5.1	4.7	4.7	100.0(1,533)
50~59세	50.0	24.2	10.2	6.6	4.7	4.2	100.0(1,590)
60~69세	46.2	27.7	12.1	5.4	4.1	4.4	100.0(1,204)
70~79세	47.3	28.1	11.2	6.4	3.7	3.3	100.0(675)
80세 이상	40.4	24.9	17.6	7.7	4.7	4.6	100.0(360)
혼인 상태($\chi^2=28.334^{***}$)							
기혼	47.9	26.8	10.8	5.7	4.5	4.2	100.0(6,114)
미혼	52.8	24.0	7.6	5.6	5.4	4.5	100.0(1,886)
자녀 유무($\chi^2=29.285^{***}$)							
예	47.8	27.0	10.7	5.9	4.3	4.3	100.0(5,561)
아니요	52.1	24.3	8.5	5.2	5.8	4.2	100.0(2,43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2> 재구성.

하는 욕구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밖에 돌봄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정서적 기능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29세의 경우 53.2%이나 80세 이상의 경우 40.4%로 차이를 보였다. ‘출산을 통한 재생산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80세 이상의 경우 재생산 기능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6%로 19~29세의 7.4%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젊

은 층은 출산을 통한 재생산의 기능을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기존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혼의 경우에도 재생산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로 기혼의 10.8%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 미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재생산 기능에 대한 중요도는 다소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가족 내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가족 내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육아, 의사 결정권, 가사노동, 경제적 부양 책임,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에 대한 5가지 항목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활용된 전통적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문항을 바탕으로 해당 관념은 ‘현시대에 맞지

표 3. 가족 내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단위: %)

항목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계(명)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	19.1	1.5	17.6	80.9	63.7	17.2	100.0(8,000)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주로 남성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	22.3	2.2	20.1	77.7	56.2	21.5	100.0(8,000)
‘가사노동은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	23.6	2.5	21.1	76.4	52.0	24.4	100.0(8,000)
‘경제적 부양책임은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	24.6	2.2	22.4	75.4	55.6	19.8	100.0(8,000)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	26.1	2.3	23.8	74.0	55.1	18.9	100.0(8,000)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3>.

않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에 제시된 방식에 비해 현재의 문항 제시 방법은 현대적 사고에 기반을 둔 중립적 가치를 제시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5가지 항목 중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에 대한 동의 비율(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은 80.9%로 5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

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4.0%로 5가지 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의 비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존의 전통적 성 역할과 책임 이념을 보편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역에 따라 인식 변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육아

앞서 조사된 5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 4. 가족 내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1: 육아

(단위: %,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19.1	1.5	17.6	80.9	63.7	17.2	100.0(8,000)	3.0
성별($\chi^2=145.796^{***}$)								
남성	19.5	1.2	18.3	80.5	65.5	15.0	100.0(3,965)	2.9
여성	18.6	1.7	17.0	81.4	62.0	19.4	100.0(4,035)	3.0
연령($\chi^2=259.929^{***}$)								
19~29세	13.7	1.6	12.1	86.3	62.1	24.2	100.0(1,360)	3.1
30~39세	14.8	1.8	13.0	85.2	63.2	22.0	100.0(1,279)	3.1
40~49세	15.9	1.5	14.4	84.1	66.8	17.3	100.0(1,533)	3.0
50~59세	20.0	1.0	19.0	80.0	66.1	13.9	100.0(1,590)	2.9
60~69세	22.5	1.7	20.8	77.5	62.9	14.6	100.0(1,204)	2.9
70~79세	30.0	1.5	28.5	70.0	59.1	10.9	100.0(675)	2.8
80세 이상	32.5	0.6	31.9	67.5	59.2	8.4	100.0(360)	2.8
혼인 상태($\chi^2=76.944^{***}$)								
기혼	20.6	1.4	19.2	79.4	63.9	15.5	100.0(6,114)	2.9
미혼	14.2	1.6	12.6	85.8	63.3	22.6	100.0(1,886)	3.1
자녀 유무($\chi^2=64.445^{***}$)								
예	20.5	1.4	19.1	79.5	64.2	15.2	100.0(5,561)	2.9
아니요	15.8	1.5	14.3	84.2	62.5	21.7	100.0(2,439)	3.0

주: 1) *** p < .001, **p < .01, *p < .05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4> 재구성.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80.9%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동의 비율이 높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의 동의 비율은 86.3%인 반면 8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은 67.5%로 차이를 보여 세대 간 육아에 대한 성 역할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혼인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른 동의 비율 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의사결정권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주로 남성이 가져야 한다’는 사고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7.7%로 5가지 항목 중 육아 부분 다음으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

표 5. 가족 내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2: 의사결정권

(단위: %, 점)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명)	평균
전체	22.3	2.2	20.1	77.7	56.2	21.5	100.0(8,000)	3.0
성별($\chi^2=55.875^{***}$)								
남성	23.4	2.1	21.3	76.6	58.5	18.1	100.0(3,965)	2.9
여성	21.1	2.3	18.9	78.9	54.0	24.8	100.0(4,035)	3.0
연령($\chi^2=147.763^{***}$)								
19~29세	17.1	1.9	15.2	82.9	56.3	26.5	100.0(1,360)	3.1
30~39세	19.3	2.2	17.1	80.7	54.3	26.4	100.0(1,279)	3.0
40~49세	21.4	1.2	20.2	78.6	55.8	22.8	100.0(1,533)	3.0
50~59세	22.0	2.3	19.7	78.0	59.5	18.5	100.0(1,590)	2.9
60~69세	26.0	2.1	23.9	74.0	55.1	18.9	100.0(1,204)	2.9
70~79세	28.6	4.4	24.2	71.4	56.2	15.2	100.0(675)	2.8
80세 이상	32.4	3.3	29.1	67.6	54.6	13.0	100.0(360)	2.8
혼인 상태($\chi^2=32.823^{***}$)								
기혼	23.4	2.3	21.1	76.6	56.3	20.3	100.0(6,114)	2.9
미혼	18.5	1.9	16.6	81.5	56.2	25.3	100.0(1,886)	3.0
자녀 유무($\chi^2=23.589^{***}$)								
예	23.5	2.4	21.1	76.5	56.2	20.3	100.0(5,561)	2.9
아니요	19.5	1.8	17.6	80.5	56.4	24.1	100.0(2,439)	3.0

주: 1) *** p < .001, **p < .01, *p < .05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5> 재구성.

는 경우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동의 비율은 78.9%로 남성의 76.6%보다 높아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였다. 19~29세의 동의 비율은 82.9%인 반면 8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은 67.6%로 가족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사노동

“가사노동은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6.4%로 육아에 대한 동의 비율 80.9%보다 다소 낮게 조사되어,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육아보다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여성인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동의 비율은 77.8%이며 남성의 동의 비율은 75.0%로 약 2.8%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아에 대한 남녀 간의 동의 비율이 약 0.9%포인트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하면 가사노동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표 6. 가족 내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3: 가사노동

(단위: %,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23.6	2.5	21.1	76.4	52.0	24.4	100.0(8,000)	3.0
성별($\chi^2=50.459^{***}$)								
남성	25.0	2.3	22.6	75.0	54.0	21.1	100.0(3,965)	2.9
여성	22.2	2.7	19.5	77.8	50.2	27.6	100.0(4,035)	3.0
연령($\chi^2=180.248^{***}$)								
19~29세	18.7	2.5	16.2	81.3	49.7	31.6	100.0(1,360)	3.1
30~39세	20.2	2.3	17.9	79.8	51.4	28.4	100.0(1,279)	3.1
40~49세	19.9	2.1	17.8	80.1	54.3	25.8	100.0(1,533)	3.0
50~59세	23.9	2.5	21.4	76.1	53.0	23.1	100.0(1,590)	3.0
60~69세	27.9	2.8	25.0	72.1	53.9	18.2	100.0(1,204)	2.9
70~79세	33.9	3.4	30.5	66.1	48.2	17.9	100.0(675)	2.8
80세 이상	34.6	2.3	32.3	65.4	50.1	15.3	100.0(360)	2.8
혼인 상태($\chi^2=55.148^{***}$)								
기혼	25.1	2.6	22.5	74.9	52.2	22.7	100.0(6,114)	3.0
미혼	18.7	2.1	16.6	81.3	51.4	29.8	100.0(1,886)	3.1
자녀 유무($\chi^2=41.537^{***}$)								
예	25.1	2.5	22.7	74.9	52.1	22.8	100.0(5,561)	3.0
아니요	20.0	2.6	17.4	80.0	51.9	28.1	100.0(2,439)	3.1

주: 1) *** p < .001, **p < .01, *p < .05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6> 재구성.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19~29세의 동의 비율은 81.3%이며 8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은 65.4%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육아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라. 경제적 부양 책임

“경제적 부양 책임은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5.4%로 육아에 대한 동의 비율(80.9%)과 가사노동에 대한 동의 비율(76.4%)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다른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된 반면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비율은 남성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타 항목과 차이를 보였다. 19~29세의 동의 비율은 79.3%이고 80

표 7. 가족 내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4: 경제적 부양 책임

(단위: %,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24.6	2.2	22.4	75.4	55.6	19.8	100.0(8,000)	2.9
성별($\chi^2=4.165$)								
남성	24.2	2.3	22.0	75.8	55.1	20.7	100.0(3,965)	2.9
여성	25.0	2.2	22.8	75.0	56.0	18.9	100.0(4,035)	2.9
연령($\chi^2=118.831^{***}$)								
19~29세	20.7	2.1	18.6	79.3	55.5	23.7	100.0(1,360)	3.0
30~39세	20.4	2.1	18.3	79.6	57.3	22.3	100.0(1,279)	3.0
40~49세	21.5	1.5	20.0	78.5	58.2	20.3	100.0(1,533)	3.0
50~59세	26.7	2.4	24.2	73.3	55.0	18.4	100.0(1,590)	2.9
60~69세	26.2	2.3	23.9	73.8	56.0	17.8	100.0(1,204)	2.9
70~79세	33.2	3.9	29.3	66.8	50.0	16.8	100.0(675)	2.8
80세 이상	37.6	2.4	35.2	62.4	50.0	12.4	100.0(360)	2.7
혼인 상태($\chi^2=39.86^{***}$)								
기혼	26.0	2.3	23.7	74.0	55.5	18.5	100.0(6,114)	2.9
미혼	20.4	2.1	18.3	79.6	55.7	23.9	100.0(1,886)	3.0
자녀 유무($\chi^2=164.273^{***}$)								
예	26.0	2.2	23.8	74.0	55.7	18.2	100.0(5,561)	2.9
아니요	21.5	2.3	19.2	78.5	55.1	23.4	100.0(2,439)	3.0

주: 1) *** p < .001, **p < .01, *p < .05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7> 재구성.

세 이상의 동의 비율은 62.4%로 이들 간의 동의 비율 차이는 16.9%포인트로 조사되었다.

마.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4.0%로, 조사된 5가지 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젊

은 세대일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동의 비율은 75.4%이고 남성의 동의 비율은 72.4%로 성별 차이가 타 항목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동의 비율 차이는 3.0%포인트로 5가지 항목 중 가장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영역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전히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성보다

표 8. 가족 내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5: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

(단위: %, 점)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명)	평균
전체	26.0	2.3	23.8	74.0	55.1	18.9	100.0(8,000)	2.9
성별($\chi^2=14.722^{**}$)								
남성	27.6	2.3	25.3	72.4	54.9	17.6	100.0(3,965)	2.9
여성	24.6	2.3	22.3	75.4	55.3	20.2	100.0(4,035)	2.9
연령($\chi^2=143.403^{***}$)								
19~29세	19.2	1.9	17.3	80.8	58.4	22.3	100.0(1,360)	3.0
30~39세	22.5	1.5	21.0	77.5	55.2	22.3	100.0(1,279)	3.0
40~49세	24.4	1.0	23.5	75.6	56.3	19.3	100.0(1,533)	2.9
50~59세	27.2	1.9	25.3	72.8	55.3	17.4	100.0(1,590)	2.9
60~69세	31.0	4.0	27.0	69.0	51.9	17.2	100.0(1,204)	2.8
70~79세	35.0	4.1	30.8	65.0	51.4	13.7	100.0(675)	2.7
80세 이상	32.8	4.5	28.4	67.2	53.2	13.9	100.0(360)	2.8
혼인 상태($\chi^2=51.109^{***}$)								
기혼	27.9	2.4	25.5	72.1	54.2	17.9	100.0(6,114)	2.9
미혼	20.1	2.0	18.0	79.9	58.0	21.9	100.0(1,886)	3.0
자녀 유무($\chi^2=43.893^{***}$)								
예	28.1	2.4	25.6	71.9	54.2	17.7	100.0(5,561)	2.9
아니요	21.5	1.9	19.5	78.5	57.0	21.5	100.0(2,439)	3.0

주: 1) *** p < .001, **p < .01, *p < .05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8> 재구성.

다소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9~29세의 동의 비율은 80.8%이고 8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은 67.2%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4. 가족 내 성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앞에서 분석된 문항은 가족 내 역할과 책임에 성에 따라 분리하는 것(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반면 현재의 문항은 육아, 가사노동, 경제적 부양 책임 등의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동등한 의사결정권,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 공평한 경제적 부양 책임, 공평한 육아 분담, 공평한 가사노동 순으로 '가족 내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가지 영역 중 가사노동에 대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47.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공평한 육아 분담에 대한 동의 비율도 55.7%에 불과하여,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 의사결정권

'남녀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7.3%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79.2%로 여성의 75.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인식하는 만큼 여성들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40~49세의 경우 동의 비율이 7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연령층과 차이를 보였다. 반면, 혼인 상태나 자녀 유무에 따른 동의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족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항목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명)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남녀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77.3	62.6	14.7	22.7	2.2	20.5	100.0(8,000)	
남녀가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70.7	56.4	14.3	29.3	2.7	26.6	100.0(8,000)	
남녀가 경제적 부양 책임을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59.4	48.3	11.1	40.6	3.4	37.2	100.0(8,000)	
남녀가 육아를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55.6	48.2	7.4	44.4	3.0	41.4	100.0(8,000)	
남녀가 가사노동을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47.7	37.1	10.6	52.3	5.8	46.5	100.0(8,000)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9>.

표 10. 가족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1: 의사결정권

(단위: %, 점)

특성	의사결정권						계(명)	평균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77.3	62.6	14.7	22.7	2.2	20.5	100.0(8,000)	2.9
성별($\chi^2=17.921^{***}$)								
남성	79.2	63.6	15.6	20.8	1.9	18.9	100.0(3,965)	2.9
여성	75.4	61.6	13.9	24.6	2.5	22.1	100.0(4,035)	2.9
연령($\chi^2=30.233^*$)								
19~29세	76.7	61.3	15.4	23.3	2.4	20.9	100.0(1,360)	2.9
30~39세	77.7	60.9	16.8	22.3	2.2	20.1	100.0(1,279)	2.9
40~49세	79.0	63.8	15.2	21.0	2.7	18.3	100.0(1,533)	2.9
50~59세	77.5	64.9	12.6	22.5	2.3	20.3	100.0(1,590)	2.9
60~69세	76.0	61.4	14.6	24.0	2.0	22.0	100.0(1,204)	2.9
70~79세	76.8	61.7	15.1	23.2	1.9	21.4	100.0(675)	2.9
80세 이상	75.5	64.1	11.4	24.5	0.6	24.0	100.0(360)	2.9
혼인 상태($\chi^2=1.058$)								
기혼	77.3	62.7	14.6	22.7	2.1	20.6	100.0(6,114)	2.9
미혼	77.3	62.1	15.2	22.7	2.5	20.3	100.0(1,886)	2.9
자녀 유무($\chi^2=4.719$)								
예	78.0	63.2	14.8	22.0	2.1	19.9	100.0(5,561)	2.9
아니요	75.8	61.3	14.5	24.2	2.4	21.9	100.0(2,439)	2.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10> 재구성.

나. 재산에 대한 권리

‘남녀가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0.7%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72.3%로 여성의 69.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된 의사결정권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인

식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비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30~39세의 경우 동의 비율이 73.8%로 가장 높으며 80세 이상의 경우 동의 비율은 6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1. 가족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2: 재산에 대한 권리

(단위: %, 점)

특성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계(명)	평균
		매우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전체	70.7	56.4	14.3	29.3	2.7	26.6	100.0(8,000)	2.8	
성별($\chi^2=11.937^{**}$)									
남성	72.3	57.4	14.9	27.7	2.3	25.4	100.0(3,965)	2.8	
여성	69.1	55.4	13.7	30.9	3.1	27.7	100.0(4,035)	2.8	
연령($\chi^2=51.996^{***}$)									
19~29세	73.1	55.7	17.4	26.9	2.6	24.4	100.0(1,360)	2.9	
30~39세	73.8	57.5	16.2	26.2	2.4	23.8	100.0(1,279)	2.9	
40~49세	71.5	57.8	13.7	28.5	1.9	26.6	100.0(1,533)	2.8	
50~59세	69.6	55.7	13.9	30.4	3.0	27.4	100.0(1,590)	2.8	
60~69세	68.7	55.5	13.2	31.3	3.8	27.5	100.0(1,204)	2.8	
70~79세	67.9	56.3	11.6	32.1	2.9	29.2	100.0(675)	2.8	
80세 이상	63.8	55.3	8.5	36.2	3.3	32.9	100.0(360)	2.7	
혼인 상태($\chi^2=20.804^{***}$)									
기혼	69.8	56.4	13.4	30.2	2.8	27.4	100.0(6,114)	2.8	
미혼	73.6	56.5	17.1	26.4	2.7	23.8	100.0(1,886)	2.9	
자녀 유무($\chi^2=14.199^{**}$)									
예	69.8	56.2	13.5	30.2	2.7	27.6	100.0(5,561)	2.8	
아니요	72.8	56.8	16.0	27.2	2.9	24.3	100.0(2,439)	2.9	

주: 1) *** p < .001, **p < .01, *p < .05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11> 재구성.

다. 육아 분담

‘남녀가 육아를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55.6%로 나타났다. 남성의 동의 비율은 59.0%로 여성의 동의 비율인 5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육아 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만큼 여성이 인식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 분담에 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의 동의 비율은 57.8%로 자녀가 있는 경우의 5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연령,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가족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 육아 분담

(단위: %, 점)

특성	동의 수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명)	평균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전체	55.7	48.2	7.4	44.3	3.0	41.4	100.0(8,000)	2.6
성별($\chi^2=56.376^{***}$)								
남성	59.0	51.4	7.6	41.0	1.9	39.1	100.0(3,965)	2.6
여성	52.4	45.1	7.3	47.6	4.0	43.6	100.0(4,035)	2.6
연령($\chi^2=21.811$)								
19~29세	58.6	50.5	8.1	41.4	3.4	38.0	100.0(1,360)	2.6
30~39세	57.0	49.9	7.1	43.0	2.5	40.5	100.0(1,279)	2.6
40~49세	55.9	47.8	8.2	44.1	2.7	41.4	100.0(1,533)	2.6
50~59세	53.4	46.1	7.4	46.6	3.1	43.5	100.0(1,590)	2.6
60~69세	53.6	47.2	6.4	46.4	2.9	43.6	100.0(1,204)	2.6
70~79세	55.2	46.7	8.5	44.8	3.1	41.6	100.0(675)	2.6
80세 이상	56.9	51.7	5.2	43.1	3.3	39.8	100.0(360)	2.6
혼인 상태($\chi^2=6.77$)								
기혼	54.9	47.5	7.4	45.1	2.9	42.1	100.0(6,114)	2.6
미혼	58.1	50.6	7.5	41.9	3.1	38.9	100.0(1,886)	2.6
자녀 유무($\chi^2=17.13^{***}$)								
예	54.8	47.1	7.7	45.2	2.7	42.6	100.0(5,561)	2.6
아니요	57.8	50.9	6.9	42.2	3.5	38.7	100.0(2,439)	2.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13> 재구성.

라. 가사노동

‘남녀가 가사노동을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7.7%로 5가지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동의 비율은 50.3%로 여성의 동의 비율인 4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아 및 타 영역처럼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9세의 동의 비율은 약 51.0%이나 50~59세의 동의 비율은 42.9%로 50~59세의 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의 동의 비율은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3. 가족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4: 가사노동

(단위: %, 점)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계(명)	평균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52.3	5.8	46.5	47.7	37.1	10.6	100.0(8,000)	2.5
성별($\chi^2=53.43^{***}$)								
남성	49.7	4.1	45.6	50.3	39.7	10.6	100.0(3,965)	2.6
여성	54.8	7.4	47.4	45.2	34.6	10.6	100.0(4,035)	2.5
연령($\chi^2=45.263^{***}$)								
19~29세	49.0	6.6	42.4	51.0	38.5	12.5	100.0(1,360)	2.6
30~39세	48.9	5.2	43.7	51.1	40.8	10.3	100.0(1,279)	2.6
40~49세	51.2	5.4	45.8	48.8	38.0	10.8	100.0(1,533)	2.5
50~59세	57.1	6.5	50.7	42.9	32.5	10.4	100.0(1,590)	2.5
60~69세	53.1	5.7	47.4	46.9	37.4	9.5	100.0(1,204)	2.5
70~79세	53.3	4.1	49.2	46.7	36.6	10.1	100.0(675)	2.5
80세 이상	55.2	6.8	48.5	44.8	35.4	9.3	100.0(360)	2.5
혼인 상태($\chi^2=10.905^*$)								
기혼	53.3	5.8	47.5	46.7	36.4	10.3	100.0(6,114)	2.5
미혼	49.1	5.8	43.3	50.9	39.5	11.5	100.0(1,886)	2.6
자녀 유무($\chi^2=16.513^{***}$)								
예	53.5	5.5	48.0	46.5	36.2	10.3	100.0(5,561)	2.5
아니요	49.6	6.5	43.2	50.4	39.2	11.2	100.0(2,439)	2.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14> 재구성.

5. 나가며

분석 결과,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개인화가 가속화됨에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정서

적 기능을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재생산 기능을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가족에 대한 정서적 기대 욕구는 앞으로 더 증가하는 반면, 재생산 기능을 통한 자녀 출산에 대한 욕구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연구에서도 미래사회에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개인화가 발전함에도 정서적 욕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양옥경, 2000).

전통적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 성 역할과 책임이 더 이상 보편적인 사회적 관념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세대, 여성,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기존의 성 역할과 책임이 현대에 맞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 내 역할과 책임을 성에 따라 분리하는 것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 젊은 세대의 경우 가족 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고령층의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67% 내외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의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공감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가정 내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세대 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 연령층에서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앞서 분석된 전통적 성 역할 및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여성에서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에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입장에서 인식과 실태에 대한 차이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이 인식하는 만큼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가족 내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는 반면 실재는 그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기능, 성 역할, 성평등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별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가족의 핵심 기능은 정서적 기능이며, 가정 내 역할과 책임을 성에 따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식 수준에 맞게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족정책은 실제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이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동등하게 나누는 사회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남성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의 기준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향후 가족정책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재생산을 통한 출산 지원정책도 가족의 정서적 기능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가족에 대한 정서적 기대는 반드시 전통적 가족구조 내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가족의 다양

한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유대감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홍렬, 장혜경, 김혜영, 김영란, 최민영, 전미경, ... 윤성호.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총괄보고서-가족기능 변화와 미래 가족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성서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충북대학교·고려대학교·전북대학교. pp.1~152.
- 양옥경 (2000).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권, pp.69-99.
-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정윤경 (2020).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ocial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s, Gend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Kim, Eun J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family functions and values based on findings from the 2020 Survey of Public Perceptions and Values toward Policy Responses to Low-fertility and Aging Societ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20. The most important among family functions turned out to be emotional support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Young people, single people, and individuals without children perceived emotional support as the most important of the family functions. Reproductive function was regarded as less important. In addition,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no longer viewed as universal social norms, and estimates of family gender equality were lower in women than in men. One of the findings is that the reality has not changed in keeping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way people view gend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within the family. In the future, family policies should be able to support the emotional function of family and equ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parenting and housekeeping.